

## 7/30(토) 이사야 34-39장 평안을 위한 고통으로

36-39장은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(대하29-32장 참고).

두 번의 조롱, 두 번의 기도, 두 번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

동일한 위기를 경험했던 아하스 왕은(7장)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건한 듯, 실상은 불순종으로 반응한 바 있습니다(7:12).

그러나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순종했습니다.

개인의 생사와 왕국의 존폐가 주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.

성경은 두 사람의 불순종과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

“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 
뒤로 십 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(38:8)”

하나님은 멸망으로 향하던 시계바늘을 되감으셨습니다.

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유다의 생명 연장이기도 합니다.

그럼에도 멸망을 향한 시계는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.

“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 
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 
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(38:17)”

히스기야는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기록합니다(38:10-20).

그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이 맞이할 고통, 포로기의 의미,

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암시가 담겼습니다.

히스기야는 왕국에 임한 심판 예언에 순복합니다(39:8).

심판과 돌이킴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.

남북 왕국은 평안을 위해 주시는 고통의 시기를 지날 것입니다.

나는 <평안을 위해 주시는 고통>을 깨닫습니까?

❶ 평안과 회복을 위해 겪게 하시는 <고통>을 경험한 바 있습니까?

❷ <고통>을 통해 깨달은 것, 돌이킨 것은 무엇입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이사야 34-39장